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광주 북구를

저력있는 후보 잇단 도전장 '대혈전 예고'

광주 북구 을 지역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맞서 정치적 저력이 있는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져 광주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Table with 5 columns: Party, Name, Age, Position, and Remarks. Candidates include 김재균, 윤민호, 임내현, 최경주, 최경환.

\* 후보는 가나다순

조직력 앞선 김재균 재선 가도 총력전 '산 사나이' 최경주·'젊은 DJ' 최경환 '고검장' 임내현 등 바닥 다지기 올인

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우자 수위 문제가 김 의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승리로 이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마무리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분투를 삼킨 최경주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조선훈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광주 시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 후보는 '산 사나이'답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마련, 민심의 정상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양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최 후보는 검증된 체력으로 바닥을 다지는 한편 '폭풍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팀을 가동, 온-오프 광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광주 고검장 출신의 임내현 후보도 이번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그동안 어느 누구보다 바닥을 충실하게 다져 왔다는 평가다. 민주당에서 법률구조단장을 맡아 각종 현안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중 앙당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임 후보는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바닥을 다지면서 새긴 민심을 토대로 호남의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세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의 최경환 후보도 북구 민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최근의 '호남 정치권의 위기'가 결국 '도전과 응전'으로 결집되는 '김대중 정신'의 실종에 기인한다며 북구 을에서부터 '젊은 DJ'가 등장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 후보는 정책 투어를 통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20~30대 유권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통합진보당 공동 광주시당위원장인 윤민호 후보도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10.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성실하게 지역을 지켜오며 진보적 가치를 내세워 온 후보에 대한 지역 민심의 호응이 나타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으로 북구 을에서 야권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윤 후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천심사 앞둔 민주당, 내주부터 광주·전남 '민심탐방'

민주당은 4·11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2인 1조로 구성된 15개의 지역 실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지역구 민심을 살피는 작업에 들어갔다.

실사팀은 지방에서 시작해 수도권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광주·전남에는 다음 주부터 파견될 예정이다.

실사팀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예비후보, 지역 언론, 여론 주도층

을 잇달아 접촉, 후보별 평판을 듣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따지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선거전 구도와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중앙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역 실사팀이 만든 보고서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로 제공돼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임종석 사무총장은 "지역 실사를 하다 보면 중앙당이 몰랐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 지역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수화해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가급적 주중 총선 공천에 필요한 당구 개정을 마련하고 공천심사 원칙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책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총선 전략을 만들고 공약 정비, 총선 이슈 발굴, 홍보전략 마련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획단은 경선방식과 공천심사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어 사실상 공천 심사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

기획단은 가급적 주중 총선 공천에 필요한 당구 개정을 마련하고 공천심사 원칙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영진 "국회의장 도전할 것"

국령애, 포토에세이 SNS 눈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1일 "광주 출신 국회의원 중 최초의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5선의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민주당당이 제1당이 되면 국회의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중진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서구와 광주 발전을 이루고자 출마하게 됐다"며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해 MB 정부 4년간 날치기 처리된 '형님 예산'의 폐해를 없애고 부당한 예산의 원상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와 기회균등을 위한 입법 활동 ▲서구 마북동 공군탄약고 이전 부지와 주변 개발 ▲광주시의 UN 인권 평화도시 등재 ▲국제과학벨트 광주분원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유망기업 분사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조비오 신부, 이원재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해양 광주 불교사암연합회장, 김신석 전 5·18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김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령애 민주당 당 강진·영안·장흥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짝사랑했던 생활 사진과 함께 자신의 글을 실어 만든 포토에세이를 제작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주민과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민에게는 단골고객을, 여성과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아이들에게는 자유학교를, 장애인에게는 평안을,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엑스포 북한 참가해야"

무소속 박중수 여수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정부와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엑스포 참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엑스포는 남북갈등을 넘어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고, MB정권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북한 참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종, 광주 남구 출마 선언

박시종 광주 남구주민회의 공동대표는 31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과 젊고 혁신적인 새 인물의 발굴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광주 남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려한 경력에 대한 보상과 지지는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회과를 강조한 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승리로 정권교체를 통해 잃어버린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주)사랑방 문고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진, 한국노총 광주의장이 지지

김명진 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의장을 만나 지지선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광주 북구 유동 한국노총회관에서 노 의장을 만나 고용 안정, 노동자 권한 신장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국내 노동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공감한 노 의장이 자신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전통시장 체험학습장 제안

송갑석 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전통 먹거리·놀이·문화·예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어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대형마트에 익숙해져 전통시장에서 멀어지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 다문화가정에는 차례상 차리는 법, 전통 음식 요리법 등을 알려준다면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김승남 민주당 당 고흥·보성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난과 고유가 속에 지방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경부의 보성과 고흥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 당기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보조를 현행 연단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유 및 LP가스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청희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Personnel Written Exam'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with details on application, fee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Hangeul/Hanja Tutor Qualification' (漢字·漢文指導師資格) with details on training and fees.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High Real Estate Showroom'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with floor plan, location, and contact info.